

典故의 解讀 문제와 고전문학교육의 방향

조지형(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전고의 유형에 따른 교수-학습의 주안점 |
| 2. 고전문학에서 전고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 | 4.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고전문학교육에 있어서 개별 작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고(典故)의 유형과 층위를 살펴보고, 이를 해독하여 정합적인 작품 이해와 감상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학교육의 무게중심이 작품의 해석과 수용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특별히 고전문학 작품을 읽고 가르치는 과정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해석을 위한 사전 준비가 많이 요구된다.¹⁾ 그것은 고전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이 현대문학 작품의 경우보다 좀더 복잡한 층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찍이 김홍규 교수는 고전문학 작품의 수용에 관여하는 지적, 정서적 활동의 층위를 다음과

1) 김석희, 『고전 읽기 해석 오류의 양태 분석』,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218면.

같이 제시하였다.²⁾

- <1> 텍스트에 대한 書誌的 이해, 판단
- <2> 텍스트 언어의 해독
- <3> 장르적 관습, 장치, 특성의 이해
- <4>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요인, 환경 및 작자에 관한 이해
- <5> 작품에 대한 느낌, 심미적 반응의 형성
- <6> 작품 해석
- <7> 작품에 대한 소감, 평가

기실 문학 작품 수용의 핵심 단계는 <5>, <6>, <7>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전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1>, <2>, <3>, <4>의 단계를 충실하게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네 단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하고 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고전문학교육에 적용해 보면, 이 가운데 <1>, <3>, <4>는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확한 정보를 교사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문학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³⁾ 따라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량이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2>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시대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언어표현을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더욱이 고전 작품의 언어는 단순히 고어(古語)나 한자어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고(典故)’라는 특별한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텍스트 언어 해독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고전문학교육의 과정에는 <1>, <2>, <3>, <4>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교사와 학습

2)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308~309면.

3) 참고로 장예준은 현행 고전문학 작품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문학 지식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작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문학 지식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문제, 그렇게 제공되는 문학 지식이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문제, 교과서 학습활동의 문제들이 문학지식과 작품에 대한 단순 설명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장예준, 『교과서를 통해 본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문제』, 『고전과 해석』 16,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회, 2014, 114~119면.

자 간에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상호 교섭의 과정이 특별히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전문학 작품을 가르치고 수용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김홍규 교수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고전문학교육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지루한 훈고학(訓詁學)과 메마른 고증주의(考證主義)가 완강하게 자리를 지켜오면서⁴⁾ 고전문학 작품은 곧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다는 ‘고전(古典)=고전(苦戰)’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전문학 텍스트 언어의 해독, 그 중에서도 전고 해독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전고가 고전문학 작품의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인자(因子) 중 하나로서, 역으로 말하면 현재의 우리가 고전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전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전고의 해독은 고전문학 작품 해석의 정합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⁵⁾ 설령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고전문학 작품을 과거적 사실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현재적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십분 수용한다 하더라도, 고전문학 텍스트 해독의 핵심인 전고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고의 해독은 단순히 난해한 어구풀이 수준의 문제 정도로 치부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전고는 전통적인 수사학의 일종이다. 문학이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로 이루어진 형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때, 전통적인 수사학으로서 전고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학교육의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⁶⁾

아울러 실제 고전문학의 교수-학습 과정이 지나치게 훈고 풀이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전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위계에 맞게, 교육의 주안점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사가 전고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문

4) 김홍규, 앞의 논문, 310~311면.

5) 이와 관련해서는 김석희, 『고전시가교육과 작품해석의 개방적 정합성』, 『국어교육』 100, 한국국어교육학회, 1999. 참조.

6) 김대행,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8, 18~25면.

학 작품에서 전고의 성격이 무엇이며 전고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고가 고전문학 작품을 가르치는 데 교육적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가치와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고의 성격과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학습 주안점은 어디에 무엇인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고전문학에서 전고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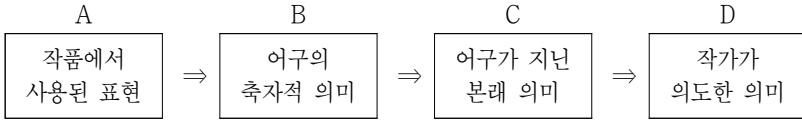
전고는 전례(典例)와 고사(故事)를 지칭하는 말로서, 문학작품에 원용될 때는 신화·전설·역사 속의 이야기 및 경서(經書)·민요·속언 가운데의 어구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수사법의 일종이다. 이는 전통적인 시문의 창작 과정에서 동원되던 방식으로 ‘용사(用事)’라는 말로 통칭되어 왔으며, 특히 한시나 시가 창작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⁷⁾ 아울러 용사는 단순히 고사를 인용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예술적 형상화나 성취에 기여하는 수사적 장치이기에 ‘전거수사학(典據修辭學)’이라 규정하기도 한다.⁸⁾

전고는 생경한 고어 및 한자어에 대한 이해와는 그 의미 지평이 다르다. 일반적인 낱선 어휘들의 경우에는 국어사전류의 검색을 통해 충분히 그 의미 파악이 가능하지만, 전고의 경우 문의(文意)만으로는 추정하기 힘든 별도의 내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정확한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또 전고는 어휘 수준을 넘어 문장, 작품의 층위까지 폭넓게 사용되기도 한다. 고전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전고로부터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의미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⁹⁾

7) 용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김성룡, 「용사의 이해」, 『湖西語文研究』 4, 湖西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6.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고는 김성룡 교수의 논이에 크게 기반하고 있다.

8) 최미정, 「전거수사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9) 제시된 도식은 김성룡, 『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1,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263면에 정리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위 도식을 볼 때,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사용된 낯선 어휘의 이해 과정은 A-B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어구의 축자적 의미만을 헤아려도 충분히 의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고가 사용된 어휘나 문장의 경우에는 A-B-C-D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무엇보다 C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D에 잘 적용시켜 작품을 해석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왜 A의 표현이 궁극적으로는 D의 의미에 이르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고전문학교육에서 요구되는 텍스트 언어의 해독이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작품에 대한 심미적 반응을 형성하고 나아가 작품을 온전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¹⁰⁾ 따라서 고전문학 작품에서 전고에 대한 정확한 해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고의 해독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의사소통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는 의미 파악 행위이다. 이는 전고의 해독이 반드시 전고 표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선행 텍스트나 배경기사를 참조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전문학교육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고전문학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고전문학 작품에는 비유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특정 수사적(修辭的)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층위의 요소가 함유되어 있는 바, 예컨대 현대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습독자의 언어적 감수성이 요구되지만, 고전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말한 전고의 해독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학습독자의 지적 교양이나 박식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¹¹⁾ 과거 동양에서는 작가들 사이에서 전고의 효과적 사용이 작품의 예술적 형상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해 왔던

10) 이와 관련하여 한창훈,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 『비평문학』 32, 한국비평학회, 2009. 참조.
 11) 김성룡, 「용사의 이해」, 『湖西語文研究』 4, 湖西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6, 63~64면.

바,¹²⁾ 풍부한 학식은 고전문학을 창작-향유하는 데 있어 미학적 요소가 되며, ‘박람강기(博覽強記)’는 창작자나 수용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과도 같은 것이 된다. 따라서 고전문학교육에서는 폭 넓은 독서와 선행학습을 통해 관련된 교양과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적 교양이 풍부하고 박식할수록 고전 작품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¹³⁾

고전문학교육이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모두 어렵고 힘들고 생경하게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학습자가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지적 교양의 토대가 부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고전문학교육은 필연적으로 현대어와 다른 표기와 어법, 문장과 의미의 해독(decoding)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습자에게 ‘고전(苦戰)’으로 전이되게 마련이다. 아울러 그나마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줄 경우 학생들의 학습피로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자는 어구 해독 및 작품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전고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간명하게 제시해 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작품 전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들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고전문학 작품과 학습자 사이에 회통(會通)의 다리를 놓기 위한 다양한 학습 설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문학교육 과정에서 전고를 파악하고 이해하여 작품의 해석과 감상에 활용하는 행위는 교육적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품위 있는 언어 능력의 신장. 전고는 표현의 압축성, 간명성, 단순미,

12) 대표적으로 양대(梁代)의 유헌(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전고(典故)의 사용이 요령을 얻으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비유하면 한 치의 굴대 빗장이 바뀌를 제어하고 한 자 되는 지도리가 관건(關鍵)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 옛 것을 사용하여 기미(機微)에 들어맞으면 자신의 입에서 나온 표현보다 낫다.(故事得其要, 雖小成績, 譬寸轄制輪, 尺樞運關也, …… 凡用舊合機, 不啻自其口出.)”고 하여, 전고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3) 참고로 헤어바르트(Herbart)는 “한 인간이 어떠한 것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도달한 지적·정의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교육은 그러한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였다. *Johann Herbart, 김영래 옮김, 『일반교육학』, 학지사, 2006. 참조.

언어의 절제, 표현의 기민성 등의 속성과 연관된다. 이 때문에 앞서 전고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양측에게 지적 교양이나 박식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미 언급하였다. 이러한 특성들 속에서 사상과 감정을 문학의 언어로 표현하고, 거꾸로 이렇게 창작된 문학적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좀더 높은 수준으로 언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전고의 이해 과정은 이미 만들어진 어구나 표현의 생성 원리를 탐색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고로써 표현된 대상물의 핵심 특성이나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사물과 사건·현상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도 있다.

현행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3학년군의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 국어 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문학 작품을 다양하면서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¹⁴⁾는 목표를 고려할 때, 중등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어휘 능력의 확장’은 문학교육을 통해서 그 효과를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전문학 작품은 많은 관습적이고 창조적인 언어활동의 보고인 바, 근원적이며 모범적인 언어 사례를 통해 언어활동 능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¹⁵⁾ 무엇보다 국어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언어능력은 실용성이나 정확성 등의 가치를 넘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품위나 품격과도 연결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말한 것처럼 ‘문학이라는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문학이란 ㉠읽고 쓰는 능력과 관계되는 것에서부터 ㉡품위 있는 학식과 활자화된 책에 대해 역점을 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창조적 또는 상상적인 글쓰기를 강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가리킨다.’¹⁶⁾라는 관점을 참조할 때, 고전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전고의 학습을 통해 어휘 능력의 확장, 언어 표현의 기품·전아함 신장 등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언어문화 정체성의 확립. 민족이 동일한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파악할 때, 언어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케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

14)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43면.

15)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16) Raymond Williams, 박만준 역, 『문학과 문화이론』, 경문사, 2003, 207~209면.

교화하고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언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조라는 내용 항목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동·서양에서 공히 고전에 대한 교육으로 수렴되었다. 그런데 고전 교육이란 과거의 언어 및 문자에 대한 학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언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던 의식의 규범을 깨닫고, 그로부터 창조적인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오늘날 국어교육 내에서도 고전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바, 이는 고전의 다양한 양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인식 방법을 발견하여 표현의 원리와 체계 및 인식 체계 등을 재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었다. 고전을 통해 고유한 표현 양식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표현을 위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여 국어교육에서 표현 교육을 위한 중요한 틀로 활용하자는 ‘고전 표현론’이 그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면,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효과적인 말하기의 원리를 추출하거나 관습구의 활용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표현에 관여하는 문화의 양상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언어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기획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과 이것의 기저에 놓이는 전고의 이해 과정은 통시적인 축에서 언어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학습자들이 고전문학 작품이 지니고 있는 언어구조 및 표현미를 체감하고 이것이 지닌 가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방향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작품 향유와 창작의 심미적 역량 고양.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짜인 언어 예술이다. 작품의 내용은 작품 속에 주제 의식으로 구현되며 이러한 주제 의식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언어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은 주제적 내용과 언어적 표현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⁷⁾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습자에게 시·소설·희곡·수필 등 다양한 문학 갈래

1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135~136면.

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전고의 탐구와 이해 과정은 작품의 수용과 재창작에도 모두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고는 선행하는 기존 어구, 문장,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현대문학의 인유(引喻, allusion)나 패러디(모방창작, parody)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¹⁸⁾ 따라서 전고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경험한 문학 작품 가운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이나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준거로 삼아 자신의 관점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시도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전문학교육 과정에서 전고를 파악하고 이해하여 작품의 해석과 감상에 활용하는 행위는 작품의 정확한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여러 교육적 가치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작품에 사용된 전고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이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이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3. 전고의 유형에 따른 교수-학습의 주안점

3.1. 물명 중심의 전고 : 상징성의 파악

고전문학 작품 안에서 사용된 전고는 어휘, 문장, 작품의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휘나 어구의 수준의 전고가 가장 흔히 쓰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경우는 명사 어휘들의 경우이다. 이런 용례는 가전(假傳)이나 우언(寓言)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18) 김성룡, 「용사의 이해」, 『湖西語文研究』 4, 湖西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6, 73~77면. 김성룡은 용사와 패러디의 연관성을 언급하면서도, 둘의 속성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즉 패러디는 어떤 대상을 야유하고 조롱하여 희화화하는 대거리로 전통적인 용사를 부정적으로 계승한 현대의 수사학이라고 하였다.

① 이규보(李奎報), <국선생전(魏先生傳)>

국성(魏聖)의 자는 중지(中之)이니, 주천군(酒泉郡) 사람이다.¹⁹⁾

② 임춘(林椿), <공방전(孔方傳)>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이니,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首陽山)에 숨어 굴혈(峒穴) 속에서 살아 아직 나와서 세상에 쓰여진 적이 없었다.²⁰⁾

위 인용문 ①은 <국선생전(魏先生傳)>의 첫머리로 술을 의인화한 것이며, ②는 <공방전(孔方傳)>의 첫머리로 엽전(돈)을 의인화 한 것이다. 두 인용문은 각각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①의 국성(魏聖)은 누룩으로 빚은 술 가운데 보기에든 마시기에든 가장 좋은 부분, 즉 윗부분에 맑게 뜬 ‘청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중지(中之)라는 자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못 가누는 모양을 나타내는 ‘곤드레’의 뜻이다. 주천군(酒泉郡)은 중국 감숙성(甘肅省)의 지명으로 성 아래에 금천(金泉)이 있는데 그 샘물 맛이 술 맛과 같다는 전설에 의해 명명된 곳이다. 작자는 술이 지닌 속성을 드러내면서, 술은 누룩으로 빚어서 윗부분에 맑게 뜬 것이 좋은 것이며 이를 마시면 곤드레하게 취하는 성질을 지녔으며, 예부터 중국의 주천이 술과 관련하여 유명한 곳으로 일컬어졌다는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성격의 작품인 임춘의 <국순전(魏醇傳)>에서는 “국순(魏醇)의 자는 자후(子厚, 호뭇)이다.”라고 하여, 이 또한 술이 누룩을 빚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의 공방(孔方)은 엽전의 네모난 구멍을 가리키는 것이다. 관지(貫之)는 엽전에 있는 구멍을 통해 돈을 꿰어서 다니는 ‘꿰미’의 뜻이다. 이후 서술 부분은 돈이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작자는 엽전이 지닌 외형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가운데 뚫린 네모난 구멍에 집중하고 특히 이 구멍을 통해 엽전을 꿰어서 다니는 일상의 쓰임새를 드러내고 있다.

19) 李奎報, 『魏先生傳』, 『東國李相國集』, 한국문집총간 1, 503면. 魏聖, 字中之, 酒泉郡人也.

20) 林椿, 『孔方傳』, 『西河集』, 한국문집총간 1, 260면. 孔方, 字貫之, 其先嘗隱首陽山, 居窟穴中, 未嘗出爲世用.

이상 두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전은 의인화 방식을 통해서 사물의 특성을 드러내는가 하면, 사물의 속성과 용도를 통해서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작가의 교훈적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다. 여기에 사용된 전고는 대상 사물이 지닌 주요 특성이나 역사적 유래 및 연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고의 이해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대상 사물이 지닌 특성을 어떻게 언어화, 기호화 하였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요소는 학습자들에게 어렵고 낯선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상적인 사물들이 낯선 기호로 다가오고 이것이 왜 이런 명명 과정을 얻었는가 하는 점을 하나하나 이해해 가는 과정은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언어의 해독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인식 지평을 조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가 유발되어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생겨날 수 있다.²¹⁾ 또 이러한 표현들은 이색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언어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명 중심의 용례는 이밖에도 매우 다양한데 그 사례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 중 이 : 저백(楮白) - 닥나무로 만들고 표면이 하얀 특성.
- 분 : 모영(毛穎) - 털로 만들고 끝이 뾰족한 모양.
- 맷 돌 : 선마(旋磨) - 빙글빙글 돌면서 곡식을 가는 속성.
- 지 팡 이 : 정시자(丁侍者) - ‘丁’의 모양과 사람을 붙들어 모시는 용도.
- 빠 꾸 기 : 포곡(布穀) - 우는 소리가 ‘씨앗을 뿌려라[布穀]’라고 하는 것과 유사함.
- 모 기 : 장훼자(長喙子) - 뾰족하고 긴 주둥이로 피를 빼는 속성.
- 반딧불이 : 광고자(光尻子) - 꿈무늬에서 빛을 내는 특성.
- 할 미 꽃 : 백두옹(白頭翁) - 꽃술이 희고 끝 부분이 살짝 꼬부라진 모양.

위에 언급한 경우들을 보면 대상물이 지니고 있는 모양, 빛깔, 소리, 용도, 제작 방법 등 여러 특성에 주목하여 전고가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1) 엄은열, 『고전문학 학습의 경험과 재미의 문제에 대한 논의』,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45면.

이러한 전고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개별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에 1차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현된 표현미가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지닌 외형적 속성을 넘어 이들 사물이 드러내는 상징이나 의미 체계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시조 작품이 좋은 참조가 된다.

#1648.1 <병가-1093>²²⁾

牧丹은 花中王이오 向日花는 忠臣이로다

蓮花는 君子이오 杏花 小人이라 菊花 隱逸士요 梅花 寒士로다 朴곳즌 老人
이오 石竹花는 少年이라 葵花 巫尙이오 海棠花는 娼妓로다

이 등에 梨花 詩客이오 紅桃 碧桃 三色桃는 風流郎인가 흥노라

위 작품은 『병와가곡집』 소재 시조 작품이다. 위 작품에서는 여러 꽃들을 열거해 가면서 각각의 꽃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거론하고 있다. 이 작품은 『고시조대전』의 동일 그룹에 모두 58수가 있는데 작품마다 약간씩 꽃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보인다. 하지만 꽃의 모양, 빛깔, 크기, 속성, 개화 시기, 향기 유무 등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를 인간 사회의 여러 인물 군상에 대응시키고 있다. 결국 꽃과 인물상의 대응 양상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꽃이 지닌 특성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학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3.2. 인물 중심의 전고 : 접점의 파악

인물에 대한 전고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행적이나 이들과 관련된 일화 등을 통해 생성된 전고를 말한다. 고전문학에서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가 동경하거나 추송하는 역사적 인물을 앞에 내세워 자신의 사상이나 세계관·출처관(出處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역사적 인물의 삶과 문학을

22) 본고에서 인용하는 시조 작품은 모두 김홍규·이형대 외 편, 『古時調大全』(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의 작품번호를 따른다.

통해 작품 창작의 모티프(motif)로 수용하고 다시금 이를 새롭게 변용한 작품들도 상당수 존재한다.²³⁾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공자(孔子), 백이(伯夷)·숙제(叔弟), 굴원(屈原), 도연명(陶淵明), 이백(李白), 소동파(蘇東坡)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이외에도 출현 빈도는 낮지만 사서류 열전(列傳) 소재 여러 인물들이 모두 전고의 대상에 포함된다.

① 정극인(丁克仁), <상춘곡(賞春曲)>

功名도 날 썩우고 富貴도 날 썩우니
 淸風明月 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흐니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흐리

② 정철(鄭澈), <관동별곡(關東別曲)>

弓王 大關 터희 烏鶻이 지지괴니
 千古興亡을 아는다 몰으는다
 淮陽 네 일흠이 마초아 ㄹ틀시고
 汲長孺 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위 인용문 ①은 15세기 문인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이 치사(致仕)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에 묻혀 살면서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상춘곡>이다. 작품의 결말부에서 작자는 공명도 부귀도 모두 마다한 채 청풍명월을 벗삼아 인생의 노년기를 즐기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발언의 과정에서 ‘단표누항(簞瓢陋巷)’이라는 전고를 가져온다. 이는 공자(孔子)가 그의 애제자 안회(顏回)를 향해 “한 그릇의 밥[簞食]과 한 표주박의 음료[瓢飲]로 누추한 시골[陋巷]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그러한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는구나!”²⁴⁾ 라고 하며 칭찬을 한 발언에서 유래한다. 즉 이는 안회라는 인물이 보여주었던, 누추하고 빈한한 의식주 환경에서도 자신

23) 이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이형대, 『시조문학과 도연명 모티프의 수용』, 『어부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인식』, 소명출판, 2002. 참고.

24) 『論語』「雍也」 子曰, 賢哉, 回也。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

이 추구하는 삶의 즐거움을 견지하였던 면모를 드러내는 전고이다. 정극인은 자신의 삶과 안회의 삶을 동일시하면서, 시골에 묻혀서 지내고 혹 끼니를 잇는 일이 여의치 않더라도 스스로 추구하는 삶의 즐거움을 부귀·공명과 맞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②는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의 명승지를 유람하며 쓴 <관동별곡>이다. 정철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원주까지 부임을 하고, 이어서 금강산 여행을 위해 철원을 거쳐 회양에 도착하였다. 회양에서 머무르자 정철은 동일한 지명을 바탕으로 중국의 회양을 연상케 되고, 곧바로 회양태수로 이름났던 급장유(汲長孺)라는 인물을 떠올린다. 급장유는 한나라 무제 때 사직지신(社稷之臣)으로 성품이 우직·호협하고 기절(氣節)을 숭상하여 황제에게도 바른말을 잘한 인물이다. 그러나 말년에는 황제의 흉노 정벌을 반대하여 미움을 사서 지방관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그의 생애 마지막 벼슬이 바로 회양태수였는데, 무제는 그를 회양태수로 임명하면서 특별히 “회양이 멀리 바닷가에 있어 교화가 잘 배풀어지지 않고 백성과 관리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명망이 높은 그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언지까지 주었다. 이에 급장유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10년 동안 회양태수를 지내면서 혜정(惠政)을 베풀었다.²⁵⁾ <관동별곡>에 인용된 ‘급장유 풍채’란 지방관로 임명한 임금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백성들에게도 혜정을 베푸는 목민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철 자신과 급장유의 비슷한 관직 이력에서 오는 것이며, 관찰사로서의 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②에 인용된 인물 전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작가가 끌어온 역사적 인물의 행적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인물들은 모두 후대 문인·관료들에게 특정한 요소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요소를 차용하여 자신의 모습과 결부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의지 및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작자는 작품 속에 끌어온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형상화한다. 즉 인물 전고의 특징은 역사인물과 작자 자신을 특정 매개고리를 활용하여 연결지으며, 나아가 이들

25) 『史記』卷120「汲黯列傳」 참조.

의 삶과 자신의 삶을 대등한 수준에서 바라보고 작자 자신이 지닌 가치관을 피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 전고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역사적 인물과 작자가 만나게 되는 접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문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여 자칫 옛날이야기를 들려 수준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사는 역사적 인물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요점화해서 텍스트 언어 해독에 필요한 적절 수준의 학습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습자가 작품의 이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3.3. 전거 중심의 전고 : 무게중심의 파악

전고의 유형 중에 가장 난해한 부분이 바로 특정 전거 중심의 전고이다. 앞서 물명이나 인물 전고의 경우에는 전고가 형성되는 원리나 전고 표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인물의 행적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거 중심의 전고는 경사류(經史類) 문헌에서 근거한 표현을 차용하는 경우로서, 종종 작품의 맥락에 따라서는 작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의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합적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작품을 보자.

① #3766.1 <도산-0001>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믈며 泉石膏肓을 고태 므슴 흐료

② #2330.1 <도산-0005>

山前에 有臺흐고 臺下에 有水 | 로다
 빼 만흐 굴머기논 오명가명흐거든
 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 므슴 흐논고

위의 두 작품은 이황(李滉)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일부이다. <도

산십이곡>은 퇴계가 벼슬에서 물러나 60세 되던 해 도산서당을 짓고 이로부터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들을 훈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은 것이다. 퇴계는 <도산십이곡> 전6곡 언지(言志)를 통해 자신이 도산에 은거하여 살아가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은 학덕을 갖추고 중앙 무대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산골 구석에 처박혀 사는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는 초야에 묻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 말하고 있다. 종장에서 퇴계는 스스로 ‘천석고황(泉石膏肓)’의 기질을 지녔음을 말한다. 천석고황은 치유 불가능한 환자처럼 산수자연에 중독되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자연의 승경(勝景)에 대한 혹독한 애착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이는 『구당서(舊唐書)』 『전유암전(田游巖傳)』에 근거한 표현으로, 전유암이 벼슬을 마다한 채 속세를 등지고 송산(嵩山)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당나라 고종(高宗)이 친히 그의 거처에 찾아가서 근황을 묻자 “신은 물과 바위에 대한 병이 고황에 들고 연무(煙霧)와 노을에 고질병이 들었습니다.〔臣泉石膏肓煙霞癘疾〕”라고 한 데서 연유한다. 즉 ‘천석고황’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강한 애착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현실 정치나 세속에서의 명리에 대한 일정한 거리감 또는 거부감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천석고황’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지평과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작품을 이해할 경우, <도산십이곡> 첫수는 현실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자연애를 바탕으로 초야에 묻혀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지게 된다.

㉡는 해석의 양상이 중층적이다.²⁶⁾ 우선 작품에서는 퇴계가 거처하는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등장한다. 산 앞에는 누대가 있고 누대 아래에는 물이 흐른다. 여기에서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매기는 변함없이 강호를 지키는 유정물(有情物)의 표상이다. 초장-중장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첫수에 보이는 ‘천석고황’의 의미를 거듭한 것으로 볼 수 있

26) <도산십이곡> 제5수와 관련해서는 김석회 교수의 작품 해석을 참고하였다. 김석회 교수는 이 작품 종장에 사용된 ‘교교백구’의 전거 적용 여부에 따라 ①땅아지를 책망하며 불현듯 자기 마음속을 점유해 오고 있는 세념을 억제한 것, ②도산주인의 입장에서 어진 제자의 떠남을 아쉬워하며 만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석회, 『고전시가 교육과 작품 해석의 개방적 정합성』, 『국어교육』 100, 한국어교육학회, 1999, 425~429면.

다. 작품의 해석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종장의 ‘교교백구(皎皎白駒)’이다. 이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백구(白駒)>에서 나온 표현으로, 교교백구는 1차적으로는 현자의 이동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그 의미망을 확장하면 떠나가는 현자를 붙들어두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현자가 타고 왔던 흰 망아지를 대신 붙잡아 뚝으로써 현자로 하여금 떠날 수 없도록 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전고이기도 하다. 다시 <도산십이곡> 제5수로 돌아가면, 종장의 교교백구는 퇴계 자신이 은거를 결심하고 서울에서 안동으로 내려올 때 타고 왔던 이동수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망아지를 타고 언제든 다시 서울로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퇴계는 초장-중장에서 보듯이 도산에 기거하며 천석고황의 삶을 살리라 결심하였기 때문에 떠날 마음이 없다. 이에 중장에서는 다시금 떠나려는 기미를 보이는 망아지에 대한 책망하는 어조를 보임으로써, 혹여 흔들릴지도 모르는 자신의 은거 의지를 잡도리하고 있는 것이다.

①, ②에 인용된 전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거 중심의 전고는 해당 문헌이나 선행 작품의 용례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의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①에서 보듯이 특정 전고가 넓은 의미 영역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미에만 천착하게 될 경우, 작품의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전고가 지닌 의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간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②에서 ‘교교백구 → 이동수단 → 떠나려는 기미를 보이는 상관물’의 경우처럼 전고가 지닌 1차적 의미를 넘어 작품 맥락 안에서 작자가 의도하는 방향의 새로운 의미 영역으로 바뀌기도 한다.²⁷⁾ 따라서 전거 중심의 전고의 경우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구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반 위에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작자가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작품 전반의 분위기나 주제의식 등과 결부지어 전고를

27) 참고로 김석희 교수는 정훈(鄭勳)의 시조 작품 #3913.1 [人間的 사름이 한들 五倫 알 리 그 머티리 /攀龍附鳳 하야 願卜隣호건마는 /百年이 하 쉬이 가니 뉘동말동호여라]에서 ‘攀龍附鳳’ 전고의 의미를 추적하여 종장의 의미가 정치적인 입신출세를 통해 군주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1차적 의미가 아니라, 작자에 의해 변형된 덕망이 높은 우인(友人)의 곁에 이웃하여 살고 싶다는 의미에 가까울 것임을 추론하기도 하였다. *김석희, 『고전시가 작품 해석의 몇 가지 국면에 관한 고찰』, 『문학치료연구』 2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48~153면.

재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3.4. 주제 중심의 전고 : 주제화의 초점

전고는 어휘, 문장 수준에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작품 층위에서도 활용된다. 작품 층위에서 전고가 활용되는 경우 특정 사상에 기반하여 가치·덕목을 드러내면서 작품 전체의 주제와 조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君은 어비여
臣은 덕스샬 어시여
民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民이 덕술 알고다
구물스다히 살손 物生
이홀 머기 다스라
이사홀 브리곡 어디갈더 홀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으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흐닐둔
나라악 太平흐니이다 <梁柱東 해독>

위 작품은 충담사(忠談師)의 <안민가(安民歌)>이다. 이 작품은 향가 중에 유교적 정치성을 드러낸 작품으로, 공자의 정치사상이 관류하고 있는 작품이다. 제나라 경공(景公)이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우며,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다우며, 자식은 자식답게 하는 것입니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대답을 하였다.²⁸⁾ 이는 각자의 신분적 위상에 입각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충담사는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노래를 지어달라는 경덕왕(景德王)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공자의 정치사상을 인용하여 쌍무관계(雙務關係)에 바탕을 둔 국가와 국민의 관계 설정하고 임금-신하-백성이 각자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작품을 지었다.

28) 『論語』「顏淵」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對曰，君君，臣臣，父父，子子。公曰，善哉，信如君不君，臣不臣，父不父，子不子，雖有粟，吾得而食諸。

결국 『논어』에 드러난 공자의 정치사상이 <안민가> 창작의 기반이자 작품의 주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父爲天 母爲地 生我劬勞
 養以乳 教以義 欲報鴻恩
 泣竹筍生 扣冰魚躍 至誠感神
 위 養老人 景 괴 엇더하니잇고
 曾參閔子 兩先生の 曾參閔子 兩先生の
 위 定省人 景 괴 엇더하니잇고

위 작품은 경기체가 <오륜가(五倫歌)> 제2장이다. 이 작품에서는 『시경(詩經)』, 『소학(小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소재 효(孝)와 관련된 여러 전고 및 효행으로 이름난 인물들을 각 행마다 배치시키고 있다. 각 행의 어구와 전고 및 인명은 모두 작품의 주제인 효로 수렴되고 있다. 1~2행에서는 천지와 같은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기르느라 고생하셨으며 젓을 먹여 길러주고 의리로서 가르쳐주셨으니 크나큰 은혜를 갚고자 한다는 화자의 의지를 피력한다. 이어서 한겨울에 죽순(竹筍)을 찾아 울던 맹종(孟宗), 얼음을 깨서 잉어를 잡은 왕상(王祥)의 지극한 효성과 공자의 제자로서 출천지효(出天之孝)인 증삼(曾參)·민자건(閔子騫)을 등장시켰다. 이를 통해 늙은 부모에 대한 봉양과 섬김이 마치 화자의 눈앞에서 구현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렇듯 작품에 드러나 있는 각각의 전고들은 작품의 주제인 효로 수렴되고 있다. 이밖에도 오륜가(五倫歌), 훈민가(訓民歌) 등에서 주제 중심의 전고 활용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작품의 주제는 효성, 우애, 충절, 부부에, 학문, 심성도야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제 중심의 전고는 작품 전체의 구조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특정 주제로 수렴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 중심의 전고는 작품의 구조 및 주제와 연결지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정 주제로 향하는 개별 표현의 여러 용례를 망라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고전문학교육에 있어서 개별 작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고의 성격이 무엇이며 전고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전고가 고전문학 작품을 가르치는 데 교육적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가치와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전고를 해독하여 정합적인 작품 이해와 감상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향도 탐색해 보았다. 앞선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갈음하고자 한다.

전고는 전례(典例)와 고사(故事)를 지칭하는 말로서, 선행 텍스트의 어구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수사법의 일종이다. 이는 단순히 전례나 고사를 인용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예술적 형상화나 성취에 기여하는 수사적 장치이기도 하다. 전고의 해독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의사소통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는 의미 파악 행위이다. 고전문학교육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고전문학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 동양에서는 작가들 사이에서 전고의 효과적 사용이 작품의 예술적 형상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해 왔던 바, 풍부한 학식은 고전문학을 창작·향유하는 데 있어 미학적 요소가 되며, ‘박람강기(博覽強記)’는 창작자나 수용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과도 같은 것이 된다. 따라서 고전문학교육에서는 폭 넓은 독서와 선행학습을 통해 관련된 교양과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고전문학교육 과정에서 전고를 파악하고 이해하여 작품의 해석과 감상에 활용하는 행위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품위 있는 언어 능력의 신장. 전고의 이해 과정은 이미 만들어진 어구나 표현의 생성 원리를 탐색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고로써 표현된 대상물의 핵심 특성이나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사물과 사건·현상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도 있다. 둘째, 언어문화 정체성의 확립. 고전교육이란 과거의 언어 및 문자에 대한 학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언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던

의식의 규범을 깨닫고, 그로부터 창조적인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어교육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과 이것의 기저에 놓이는 전고의 이해 과정을 통해 언어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작품 향유와 창작의 심미적 역량 고양. 전고는 선행하는 기존 어구, 문장,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인유(引喩, allusion)나 패러디(모방창작, parody)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전고의 탐구와 이해 과정은 작품의 수용과 재창작에도 모두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별 작품에 사용된 전고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물명 중심의 전고는 가전(假傳)이나 우언(寓言)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개별 어휘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물명 중심 전고는 학습자로 하여금 대상 사물이 지닌 특성을 어떻게 언어화, 기호화 하였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현된 표현미가 무엇인지, 이들 사물이 드러내는 상징이나 의미 체계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물 중심 전고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행적이나 이들과 관련된 일화 등을 통해 생성된 전고로서, 고전문학에서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가 동경하거나 추승하는 역사적 인물을 앞에 내세워 자신의 사상이나 세계관·출처관(出處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물 중심의 전고에서는 역사적 인물과 작자가 만나게 되는 접점이 무엇인지,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전거 중심의 전고는 경사류(經史類) 문헌에서 근거한 표현을 차용하는 경우로서, 작품의 맥락에 따라서는 작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의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전고가 지닌 의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간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자가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주제 중심의 전고는 작품 층위에서도 활용된 경우로서, 특정 사상에 기반하여 가치·덕목을 드러내면서 작품 전체의 주제와 조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제 중심의 전고는 작품의 구조 및 주제화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교육의 과정에서 전고를 모르면 어렵게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전고를 잘 알면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고전문학의 교수-학습 과정이 지나치게 혼고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교사가 전고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전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위계에 맞게, 교육의 주안점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김대행,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8.
- 김석희, 「고전시가 교육과 작품해석의 개방적 정합성」, 『국어교육』 100, 한국국어교육학회, 1999.
- 김석희, 「고전시가 작품 해석의 몇 가지 국면에 관한 고찰」, 『문학치료연구』 2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 김석희, 「고전 읽기 해석 오류의 양태 분석」,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 김성룡, 「용사의 이해」, 『湖西語文研究』 4, 湖西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6.
- 김성룡, 「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1,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 김흥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염은열, 「고전문학 학습의 경험과 재미의 문제에 대한 논의」,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 이형대, 「시조문학과 도연명 모티프의 수용」, 『어부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인식』, 소명출판, 2002.
- 장예준, 「교과서를 통해 본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문제」, 『고전과 해석』 16,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4.
- 최미정, 「전거수사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한창훈,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 『비평문학』 32, 한국비평학회, 2009.
- Johann Herbart, 김영래 옮김, 『일반교육학』, 학지사, 2006.
- Raymond Williams, 박만준 역, 『문학과 문화이론』, 경문사, 2003.

【국문초록】

본고는 고전문학교육에 있어서 개별 작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고의 성격이 무엇이며 전고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전고가 고전문학 작품을 가르치는 데 교육적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가치와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전고를 해독하여 종합적인 작품 이해와 감상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향도 탐색해 보았다.

전고는 선행 텍스트의 어구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문학 작품의 예술적 형상화나 성취에 기여하는 수사적 장치이기도 하다. 전고의 해독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의사소통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는 의미 파악 행위이다. 고전문학교육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고전문학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전문학교육 과정에서 전고를 파악하고 이해하여 작품의 해석과 감상에 활용하는 행위는 품위 있는 언어 능력의 신장, 언어문화 정체성의 확립, 작품 향유와 창작의 심미적 역량 고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개별 작품에 사용된 전고는 그 유형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학습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물명(物名) 중심의 전고는 방식으로 개별 어휘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대상 사물이 지닌 특성을 어떻게 언어화, 기호화 하였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물(人物) 중심 전고는 역사적 인물과 작자가 만나게 되는 접점이 무엇인지,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전거(典據) 중심의 전고는 경사류(經史類) 문헌에서 근거한 표현을 차용하는 경우로서,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전고가 지닌 의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간파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제 중심의 전고는 작품의 구조 및 주제화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교육의 과정에서 전고를 모르면 어렵게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전고를 잘 알면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고전문학의 교수-학습 과정이 지나치게 훈고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교사는 전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위계에 맞게, 교육의 주안점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주제어: 고전문학교육, 전고의 해독, 해석의 정합성, 상호텍스트성, 인유

【Abstracts】

Decoding of authentic precedent and teaching-learning Strategy in the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Cho Ji-hyoung

This study examined what is a characteristic of authentic precedent included in an individual work and what is a type of authentic precedent i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and through this, examined which meaningful value and possibility an authentic precedent contains educationally on teaching classical literature works. In addition, an authentic precedent was decoded, so a teaching-learning direction was explored to be used in conformable work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An authentic precedent is one of rhetoric to impart contents effectively and make image clear by using a word of leading text, and is also a rhetorical device contributing on artistic imagery or achievement of a literary work. Decoding of authentic precedent is a semantic understanding act based on communication principle 'Intertextuality'. In a process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such factor becomes an aesthetic factor of classical literature work.

An act using in interpretation and appreciation of a work by understanding an authentic precedent in a process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has an educationally meaningful value and possibility in three

aspects such as increase of an elegant linguistic ability, establishment of linguistic culture identity, and enjoyment of a work and aesthetic capability enhancement of creation.

An authentic precedent used in an individual work should place an emphasis on study as follows in a teaching-learning process according to the types. First, an authentic precedent focusing on the name of a thing should place an emphasis on understanding of a symbol individual word has. The core is making learners understand how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are verbalized and symbolized. Second, for an authentic precedent focusing on a figure,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what is the interface between a historical figure and a writer, and what a writer wants to say through a historical figure. Third, an authentic precedent focusing on authority is in case of borrowing expression based on the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ical records, and it should be penetrated where the centroid of meaning relevant authentic precedent has is put by considering a context of work. Fourth, for an authentic precedent focusing on a subject, teaching-learning should be reached by focusing on structure and topicalization of a work.

If teachers do not know an authentic precedent in a process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they teach difficultly, but if they know an authentic precedent well, they can teach easily. To extricate from a swamp of excessive exposition of a teaching-learning process of classical literature, it is important that teachers understand characteristics by types of an authentic precedent based on a deep understanding of authentic precedent, so engage in teaching-learning with an emphasis on education to fit a level and a rank of learners.

Key words: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decoding of authentic precedent, coherence of reading and interpretation, Intertextuality, allusion

이 논문은 2015년 10월 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2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